

남원 신관사또부임행차 막 내려

상설공연 8개월 대장정... 시 홍보 기여 및 중국 주요 방송매체서 관심

남원 관광의 대표 효자상품인 신관 사또부임행차 상설공연이 17일을 마지막으로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신관사또부임행차는 12년 연속 문체부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올해까지 13년 동안 454회를 운영하였으며 매주 주말 납입을 들뜬이게 했다. 올 공연은 지난 4월부터 11월 17일까지 상설공연 35회와 타 지역 초청 및 홍보공연 8회 등 총 43회의 바쁜 일정을 이었으며, 특히, 지난 4월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의 '남원의 날' 행사에서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고, 추억의 7080총정액 초청공연, 서울 남원관광설명회 등에 참여해 남원시 홍보에 기여했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국 영성사에서 개최된 제1회 중·

한 투자박람회 남원홍보관에서 남원시를 알리고 행사장을 찾는 현지인 및 중국 주요 방송매체들을 매료시켰다는 평이다. 특이한 것은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은 공연의 기획, 연출, 연기 등 모든 구성을 전문가가 아닌 순수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전국 유일의 공연 시스템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단원을 모집해 2개월간의 교육을 거쳐 배역별로 배치하는데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75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연의 시작은 남원 관광지(남원투어)에서 오프닝 마당을 선보이며, 거리행렬 후 광한루원에서 마당극 춘향전을 공연하는 거리퍼레이드와 마

당극으로 구성된 3시간짜리 공연물이며, 광한루원에서는 취타대 연주, 육방의 코믹댄스, 기생의 부채춤 기성검고, 춘향잡고, 관광객 주리체험, 특산품 증정, 출연진과의 포토존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본 공연 외에도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SW)인 신규 마당극 '흥부가 돌아왔다'와 퓨전혼례 체험극 '울엄니 시집가는 날' 등을 여름휴가철인 6~8월까지 성황리에 공연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관사또부임행차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핵심 콘텐츠를 강화시키고 공연단의 위상강화 및 운영활성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020 도민체전 성공 개최 위해 총력

포스터 · 엠블럼 · 마스코트 · 슬로건 등 결정

남원시는 2020년 5월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첫 걸음으로 상징물인 포스터, 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14일 도민체육대회 상징물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부시장)를 열고, 제57회 도민체전에서 사용할 상징물 8점을 선정했다. 이날 심사는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에서 응모한 상징물 포스터 3점, 엠블럼 9점, 마스코트 4점, 슬로건 199점 등 총 215점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의원, 대학교수, 체육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의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과 가작을 결정했다. 포스터 부문 당선작에는 광한루를 배경으로 춘향과 남원의 매력을 표현한 김명숙(강원도 원주)씨의 작품, 가작에는 남원의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관광지 모습을 나타낸 이용기(서울 강동구)씨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엠블럼 부문 당선작에는 사람의 도시 남원을 상징하는 하트 형상을 모티브로 한 정세희(전북 전주)씨의 작품이, 가작에는 김명숙(강원도 원주)씨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마스코트 부문 당선작에는 김재호(서울 동대문구)씨의 성춘향과 이용

룡을 마스코트로 한 작품이, 가작에는 김강민(서울 노원구)씨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슬로건 부문 당선작에는 김효섭(인천 연수구)씨의 "사랑의 도시 남원에 서 하나되는 도민체전"이, 가작에는 변명열(울산 남구)씨의 "천년사랑 남원에서 화합하는 도민체전"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 작품들은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입상후보자 공고를 통한 표절 이의신청 접수 후 최종 확정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규 부시장은 "이번 상징물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남원에서 개최되는 제57회 도민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성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준공식

임실군 성수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문을 열었다. 임실군은 지난 15일 심민 군수와 신대용 군의회의장,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성수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연면적 496.6㎡ 1층 규모로 지어졌다.

경기장 안에는 사무실과 휴게실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었다. 또한 사용해 온 게이트볼장은 공식 규격이 아닌 작고, 노후된 시설로 동호인 및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새로운 게이트볼장을 건립했다. 이번에 새로 건립한 전천후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 동호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게이트볼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게이트볼 회원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체육 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장소가 될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지난 15일 풍산면 다목적체육관 준공식을 가졌다.

순창군, 풍산면 다목적체육관 준공

배드민턴 3코트, 배구 1코트 등 총 4코트 갖춰

순창군이 지난 15일 풍산면 다목적체육관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순창군의회 의원, 사회단체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체육관 건립은 대기 환경악화로 실외 활동 제약에 따른 실내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1층 면에 1개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했던 황 군수의 의지도 담겨있다. 이날 준공식은 풍산면 농악 한마당패와 산울림 품바 난타 팀의 식전행사로 행사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며, 이어 배민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14번지에 위치한 이번 체육관은, 지상 1층 규모로 배드민턴 3코트, 배구 1코트 등 총 4코트가 조성됐고, 외부 주차장도 14면을 조성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군은 지난 2017년 6월 2,846㎡의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8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4천만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19억 3천만원을 투입해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체육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도 받았다. 준공식에 참석한 황 군수는 축사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사와 함께 적절한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면서 "새롭게 건립된 체육관을 적극 활용해 장수의 의지도 담겨있다. 이어 사회복지협의회 풍산면지회 주관으로 노인위안잔치도 열려 준공식에 참여한 노인들은 이날 하루를 흥겹게 보냈다. 한편 군은 이번 체육관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건립돼 향후 풍산면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행사를 누릴 수 있는 풍산면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제2노인복지관 설계 공모 건축사사무소이엔지 선정

남원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제2노인복지관 건립' 건축설계 공모의 당선작으로 주)길 건축사사무소이엔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주변 환경과의 공간연계, 사용자 편의를 위한 동선계획 및 공간구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에서는 공공건축물로서의 품격 확보 및 사용자 편의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2노인복지관 건축설계를 제안공모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12일 도내 건축분야 교수 및 관내 건축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을 결정했다. 남원시 제2노인복지관은 동북권인 고령동 남원농협 통합경제사업장 단지 4,180㎡부지에 총 90억원을 투입해 취미 및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강당 등을 갖춘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완주 시장은 "동북권에 건립될 제2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어르신들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지욕구를 수용하는 구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순창군이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아기출생 기념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탄생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몸무게, 키, 혈액형 등 기본정보와 함께 아기의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기재되어 부모는 물론 아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되고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 1장을 생후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출산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순창군이 최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도 생활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위해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는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운영하는 2020년도 생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와 자활기금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의 안건 심의와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복지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수급대상자 선정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자활기금 운용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